



지은이 - 크리스토퍼 켈러
 옮긴이 - 이승숙
 펴낸곳 - 시공사

열 살짜리 흑인 소년 버드가
 세상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

〈난 버디가 아니라 버드야〉

보통 어린이들의 아침은 학교 가라고 깨우는 엄마의 재촉 소리와 식탁에 차려진 아침 밥 냄새로 시작됩니다. 그렇지만 시설에 사는 친구들은 다릅니다.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줄 서 있어야 합니다. 그날 아침 버드가 식당 앞에 줄 서 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수양가족을 찾았다고 줄밖으로 끌어내면서 버드의 평온한 일상은 끝이 납니다.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, 그 중에 흑인 고아 어린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더 아주 험겨운 일이라는 것을 버드는 알려줍니다. 차라리 시설에서 친구들과 사는 것이 낫지, 수양 가족에게 가면 정부보조금 때문에 걸으려는 친절한 척 하면서 학대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시설의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.

엄마와 단 둘이 살 때에는 조금 가난했지만 엄마가 파란색의 광고지 한 장을 남기고 갑자기 버드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 후에 버드는 온갖 사람들에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자기 이름을 '버디'가 아닌 '버드'라고 알려주면서 세상과 대결해 갑니다. 아무튼, 아모스씨 네 수양가족의 한 사람이 되어 며칠을 보내면서 아모스씨 아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버드는 도망을 칩니다. 버드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혼자만 들어낸 백 개도 넘는 법칙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 (잠을 깬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누군가 자신을 빙 둘러싸고 서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,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잠자는 척 한다)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 이 법칙은 29번 법칙으로 아모스씨 네서 도망쳐 나와 레프티 루이스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 줄 때 써 먹었죠.

길고 슬프고 아름다운 버드의 아빠 찾아가기는 아주 간절히 소망하면,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잃지 않으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진다는 감동을 전해줍니다. 엄마가 남겨준 한 장의 광고지, 재즈밴드 연주자, 그 똥똥한 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.

미국의 권위 있는 뉴베리 아동문학상을 탔습니다. 이제 버드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. 버드가 밴드의 에디 아저씨에게 말합니다. "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 눈이 울지 않아요." 작은 열 살의 남자 아이가 겪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지만, 결국 이겨낸 버드에게 눈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나 봐요.

미국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버디(친구)라고 말합니다. 그렇지만 버드의 엄마는 버드(새싹)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. 버드는 자기 이름을 지켰습니다.

(글/김영숙(시인, 해오른누리기획실장))